

고정

Vol.597 2026 MARCH+APRIL



03

04

COVER STORY



새로운 세대에 거는 기대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305기 & 법무연수원 교수·교관

봄에는 유독 '찬란하다'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새봄이 온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305기와
세 사람의 교수·교관이 마주 앉아 '변화'와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조직에 불어넣을 공기는 어쩌면 낯설겠으나 아마도 푸를 것입니다.

| | |
|-----------|----|
| 교정 풍경 | 02 |
| 교정인의 눈 | 08 |
| 교정직필 | 12 |
| 스마트 교정 | 14 |
| 職터뷰 | 18 |
| 나이스 투 밋유 | 22 |
| 만나다, 잇다 | 26 |
| 교정Toon | 28 |
| 슬기로운 교정생활 | 30 |
| 로컬의 취향 | 32 |
| 일상력연구소 | 36 |
| 라이프 2.0 | 40 |
| 나의 마음은 | 42 |
| 교정본부 뉴스 | 44 |
| 교정기관 오늘 | 48 |
| 독자마당 | 52 |

Contents

교정

Vol.597
2026 MAR+APR

생각을 잇다

- 울산바위의 가호 아래, 강원북부교도소
- 2026 교정행정 대전환:
조직 구조의 질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 구글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
10년 동안 교정 조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마음을 잇다

- 장흥교도소 시설관리인 허종복의 일:
좋은 인상을 만든다는 것
-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305기가 선배들에게 묻다
헌신의 이름 새긴 대전교도소,
'명예의 벽' 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 우리의 배터리는 사랑으로 완전충전!
봄봄봄, 봄이 왔어요

일상을 잇다

- N번째 여행자를 위한 강릉 안내서
금값이 올랐더니 기쁜 한데...
금 투자 시대의 명과 암
- 은퇴 후 진짜 원하는 삶 찾기:
명확한 목표가 구체적 실행을 이끈다
-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소식을 잇다

- 교정본부 주요 소식
- 전국 교정기관 소식
- 초성퀴즈 이벤트

발행인 이훈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6년 4월 7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바위의 가호 아래, 강원북부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는 해발 900m, 폭 600m의 울산바위가 굽어보는 위치에서 있다. 속초 사람들이 그러하듯 울산바위의 가호를 받으며, 모두의 안녕을 지키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눈과 단풍을 가리지 않고, 계절과 날씨를 품는
울산바위는 강원북부교도소 '최고의 복지'이기도 하다.
황부현 교위(왼쪽)와 이종민 교도(오른쪽)는
그 바위 아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1



3



4



2



5

- 1 울산바위의 품에 안긴 사무청사 앞, 오래된 소나무가 정직과 안녕을 전한다.
- 2 2020년 개청한 강원북부교도소는 저층 분산형 설계에 따라 수용청사와 사무청사가 분리돼 있다. 감시에서 교화로, 달라진 교정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구조다.
- 3 유난히 이일이 많은 날, 출격을 앞둔 CRPT 요원의 등에 긴장이 서려 있다.
- 4 탁구대와 서프보드가 공존하는 체육관, 해양도시의 체육관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 5 강원북부교도소는 개청 이전부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속초 시민이 기록한 속초의 사계가 사무청사로 들어온 이유다.

강원북부교도소가 있는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에서는 울산바위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다. 외설악 북동쪽에 위치해 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은 이 바위는 크고 작은 것까지 고려하면 30여 개의 봉우리를 거느린 거대한 암릉(巖陵)이다. 해발고도는 900m, 폭은 600m에 달한다.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시인 이상국은 「울산바위」에 이렇게 옮겨 적었다.

그전에/ 아주 그전에/ 울산바위가 뱃길로 금강산 가다가/
느닷없이 바다가 산이 되는 바람에/
설악산 종턱에 걸터앉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바람이 몸을 두드릴 때마다/
파도소리가 나는 건 다 그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모여라// 꽃단풍 물단풍 곱게 들고/
동해 미치도록 푸른 날/ 울산바위 내려 타고/
가다만 금강산 가자

강원북부교도소는 이 크고 너른 바위의 품에 안겨 있다. 어디 울산바위뿐일까. 자연은 속초의 제일 가는 자랑이자 속초 정서의 근원이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의 영광호, 새빨간 파라솔이 파도의 군무를 맞이하는 한여름 속초해수욕장, ‘붉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설악의 가을... 호수와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도시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영랑호를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도 있어요.” 김상철 총무계장이 살짝 귀띔한다. 영광호의 둘레는 약 7.8km로, 보행자에게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물 윗길을 걷는 특혜가 주어진다. 울산바위의 기운은 사람에 따라 달리 발현된다. “저 바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중년의 교정공무원에게는 ‘산신’의 또 다른 이름



6

인 듯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삼십 대에 접어든 김준일 교위의 울산바위 활용법은 남다르다. “출근길에 울산바위를 보면 날씨를 알 수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까지도요. 서울의 롯데월드 같은 거죠.”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또 한 번 속초의 절경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엔 실경(實景)이 아니다. “속초 시민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수용청사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수가 고향이고 지금은 가족 모두 속초에 살고 있다는 김영덕 교위가 속초의 자연과 숨씨를 자랑한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2020년에 개청했다. 속초에 생긴 첫 교정 시설이다. 이에 개청 이전부터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봄마다 전 직원이 영광호에서 벌이는 환경 지킴이 활동도 그 중 하나다.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와 특강을 열 때면 이웃한 장천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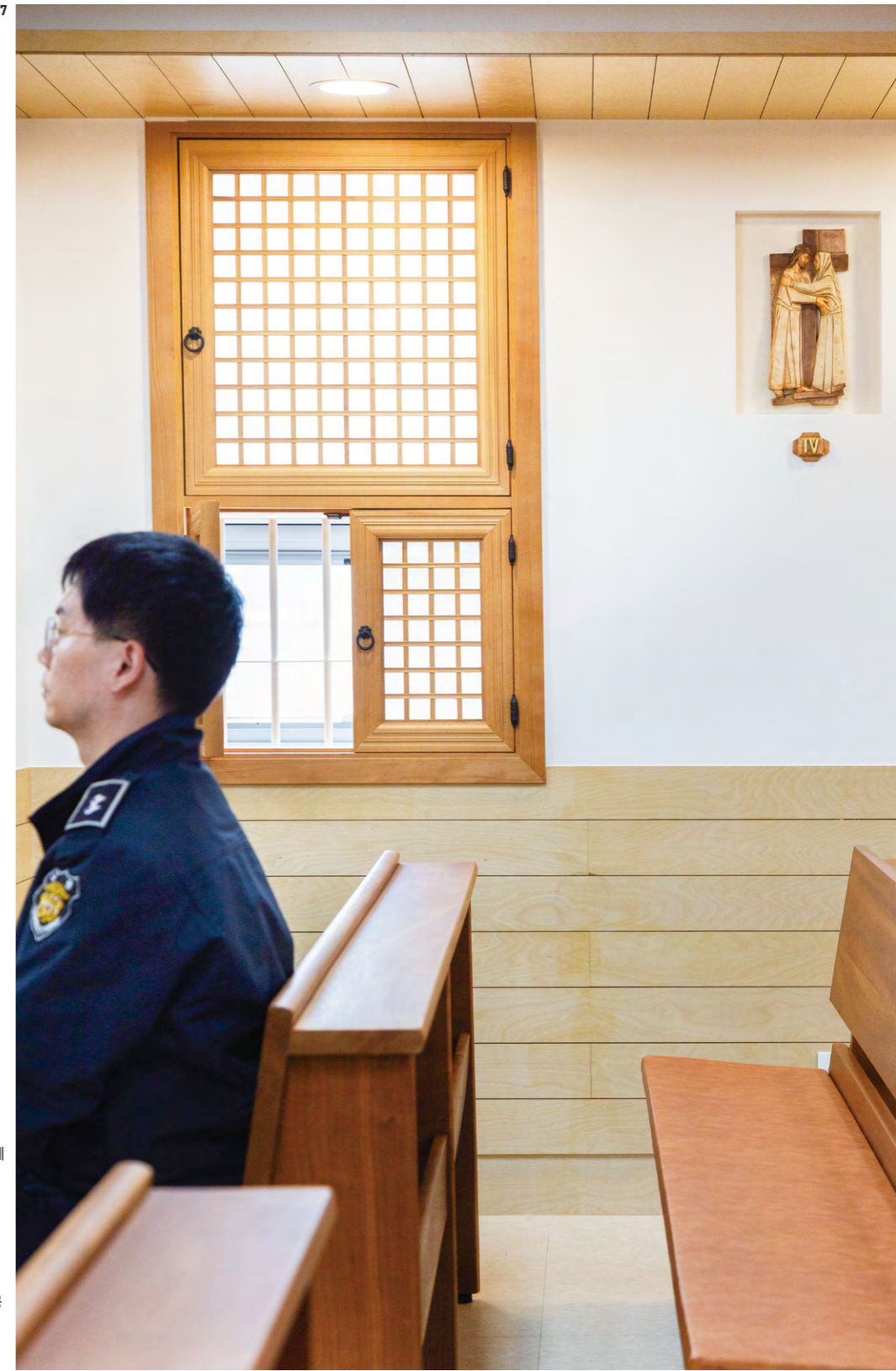
주민들을 초청한다. 테니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시민과 공유하고, 개청 당시 약속한 지역 인재 채용도 지속하고 있다. 속초 시민들이 찍은 속초 사진 외에 속초 출신 작가들의 미술과 서예 작품으로 복도 갤러리를 꾸리고, 체육시설에는 ‘영랑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강원북부교도소는 속초에 스며드는 데서 멈출 생각이 없다. “지금 속초 시내 버스 정거장 전광판을 활용해 관공서와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캠페인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몰라서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니까요.” 속초 시민의 마음으로 한 일, 김상철 총무계장의 말은 그렇게 들렸다. 현재 강원북부교도소 교정위원은 85명에 달한다. 인구 8만의 소도시임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화가 공간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강원북부교도소 천주교 미사실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단에는 정성스레 깎은 나무 십자가가 자리하고, 신자석에서 바라다 보이는 창에는 쇠창살을 가리는 덧문이 달려 있었다. “감옥 같지 않죠?” 사회복귀과 흥경의 교도는 종교실을 관리하는 사람 특유의 조심성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종교실은 수용자들이 사회와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 선한 마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명이라도 참된 교화에 닿을 수 있다면, 이 공간은 마땅히 존재해야죠.”

가족 접견실은 교화에 대한 강원북부교도소의 시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가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할 때, 출소 후 사회 적응력이 높고 재범률은 낮다. 밝은 조명과 파스텔 컬러를 입은 아이용 소파,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단정한 식탁까지... 이곳에서 창살 대신 아이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잠시나마 아빠가 된 수용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마침, 강원북부교도소를 찾은 날은 이입 일정이 많았다. 저벽에는 발차국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막 이입 업무를 마친 두 CRPT가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설악의 능선을 타고 내려온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길을 터주고 고개를 들자 수용동 운동장 너머로 언뜻 울산바위가 보였다. 마치 교화에 힘을 보태기라도 하듯이.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7



6 수용동 운동장 담장 너머로 울산바위가 보인다. 자연이기에 내어줄 수 있는 너른 품, 그 아래 참화와 위안이 깃들기를.

7 천주교 미사실에 앉은 사회복귀과 흥경의 교도는 기도하듯 수용자들의 참된 교화를 기원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대신한 목공 장식들, 차가운 창살을 가린 덧문, 손으로 깎은 십자가에도 같은 기도가 담겨 있다.



2026 교정행정 대전환: 조직 구조의 질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대전환’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교정 조직의 성공적 혁신 또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①치료 재활을 통한 재범률 감소 ②2030년까지 교정시설 조성 계획 완수 ③AI 등 도입을 통한 첨단 교정 구축 ④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핵심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과거의 응보적 구급과 단순 수용 관리를 넘어, 수용자의 온전한 재활과 재사회화를 핵심 가치로 삼는 ‘현대적 교정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재 교정 조직이 안고 있는 기형적 직급 체계와 만성적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 구조는 리더십 공백을 부른다

대한민국 교정 조직은 하위직 편중의 ‘압정형’ 구조를 띠고 있다. 「2025년 교정통계 연보」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직제 규칙에 따르면, 전체 교정공무원 1만 6,778명 중 교정직렬 공무원은 총 1만 5,552명으로 이 중 5급 이상의 상위 직급은 전체 3.2%에 불과하며 6급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2026년 1월 기준). 이러한 기형적 직급 구조는 현장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2026년 교정공무원 및 교정직렬 직급별 정원

단위: 명

| 구분 | 계 | 고위 | 3·4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5급 이상 |
|------------|--------|--------------|-------------|--------------|---------------|-----------------|------------------|------------------|------------------|---------------|
| 총 정원 | 16,778 | 19 | 11 | 125 | 416 | 1,666 | 2,066 | 5,829 | 6,450 | 642 |
| 교정직렬 기준 정원 | 15,552 | 19 (0.1%) | 7 (0.0%) | 65 (0.4%) | 373 (2.4%) | 1,543 (9.9%) | 1,858 (11.9%) | 5,606 (36.0%) | 6,043 (38.9%) | 502 (3.2%) |
| 교정직렬 운영 정원 | 15,552 | 19 (0.1%) | 7 (0.0%) | 65 (0.4%) | 387 (2.5%) | 1,532 (9.9%) | 1,854 (11.9%) | 5,606 (36.0%) | 6,043 (38.9%) | 517 (3.3%) |

본부의 기획 역량만큼 중요한 것이 소속 기관의 5급 이상 관리자급 리더십이다. 이들은 본부의 정책을 현장에 투영하고, 복잡다단한 수용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피드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의 좁은 승진 문턱은 유능한 인재들을 장기간 하위직에 정체시킴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교도관으로서의 사명감 대신 보신주의와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직급 구조 상향 재편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 배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설 확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 총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0년간 교정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교정공무원 정원은 이에 비례하여 꾸준히 확충되지 못했다. 교도소 신설·증축, 노후 시설 현대화에 따른 필수 관리 인력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면서

기존 A 기관의 교정공무원을 신규 B 기관으로 분산 배치(이체)했으며, 이로 인해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나 업무 밀도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안 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온 통합활동정원제에 따라 인력 감축이 진행되면서 사무직 업무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됐다.

교정시설 및 수용 정·현원 증가에 따른 교정공무원 관리 수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6 | 2025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교정시설 | 54 | 54 | 54 | 54 | 54 | 53 | 53 | 52 | 52 |
| 수용 정원 | 50,614 | 50,614 | 50,250 | 49,922 | 48,990 | 48,980 | 48,600 | 47,990 | 47,820 |
| 1일 평균 수용 인원 | 64,849 | 64,976 | 61,366 | 56,577 | 51,117 | 52,368 | 53,873 | 54,624 | 54,744 |
| 교정공무원 | 16,778 | 16,762 | 16,716 | 16,776 | 16,870 | 16,714 | 16,544 | 16,163 | 16,061 |
| 교정공무원 1인당 관리 수용자 | 3.9 | 3.9 | 3.7 | 3.4 | 3.0 | 3.1 | 3.3 | 3.4 | 3.4 |

[예시1] 2022. 11. 거창(구) 신설(행안부 증원: 93명 / 현 정원: 165명) *72명 타 기관 이체
 [예시2] 2020. 2. 강원북부(교) 신설(행안부 증원: 136명 / 현 정원: 176명) *40명 타 기관 이체

특히 수용자 인권 보호와 심리 치료, 직업훈련, 마약 재활 등 교화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업무 난도는 높아졌다. 그럼에도 현장 인력 운용은 여전히 과거의 '계호(경비) 중심'에 머물러 있어, 결국 인력의 공백을 직원들의 강도 높은 노동력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 사고 예방이라는 조직의 근본적인 목표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번아웃된 직원은 수준 높은 교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근무 체계 파행을 초래한다. 현재 많은 소속 기관에서 정상적인 4조 2교대 근무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휴무일에도 비상 근무나 윤번 출근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행정학적으로 볼 때, 공공 서비스의 질은 최일선 집행자의 직무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최소한의 휴식 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소진(Burn-out)된 직원이 수용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수준 높은 교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인력 충원은 단순히 '일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공무원이 사회 방위 전문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압정형 직급 구조와 만성적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교정 조직이 법무부 내 '본부' 체제에 갇혀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법무부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1만 6,000여 명의 거대 조직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 재범 방지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려면,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이 필수다.

'교정청'으로의 독립은 곧 인사 및 예산 편성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의미한다. 이는 오랜 기간 고착화된 기형적 직급 구조를 혁신하고, 적기에 현장 인력을 확충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수형자 관리가 이뤄지며, 현장 교도관들은 단순 구금 관리자가 아닌 '공공 안전 및 재활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온전히 되찾게 될 것이다. 조직의 허리인 중간 관리층을 강화하고 최일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일은,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 복귀와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 강화에 직결된다. 2026년이 교정본부가 단순 수용 관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공공안전 전문 조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교정 조직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재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감



'교정청'으로의 독립은 곧 인사 및 예산 편성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의미한다. 이는 오랜 기간 고착화된 기형적 직급 구조를 혁신하고, 적기에 현장 인력을 확충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수형자 관리가 이뤄지며, 현장 교도관들은 단순 구금 관리자가 아닌 '공공 안전 및 재활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온전히 되찾게 될 것이다.

구글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

생산성 만능주의 시대, 심리적 안전감이 더 강한 팀을 만든다.



남들보다 사회 진출이 늦었다. 절실함 때문인지 연차에 비해 빠르게 중간 관리자가 됐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조직과 성과,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하는 삼중고가 없어졌다. 갓 면허를 따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온 기분이었다.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찌저찌 잘 해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일하는 콘텐츠 업계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 글밥 먹고 사는 직업이라 간단한 문장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고, 기사화해야 하는 이슈는 계속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 분위기도, 성과도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조직에 관한 글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중 직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소개한다.

2012년 구글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서 따온 이름이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야심찼다. ‘어떤 속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팀은 비로소 최고의 성과를 내는가? 그 조건을 데이터로 밝혀내겠다’는 것이었다. 연구는 2014년까지 약 2년간 이어졌다. 엔지니어링 팀 115개, 영업 팀 65개 등 총 180개 팀을 대상으로 팀원 각자의 업무 방식, 성격 유형, 팀 내 소통 방식까지 250개 이상의 속성을 들여다봤다. 연구진이 세운 가설은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뛰어난 개인이 모이면 뛰어난 팀이 된다는 것. 학력, 경력, 전문성의 조합이 팀 성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팀 성과를 예측하는 결정적 변수는 구성원의 역량이나 배경이 아니었다. 핵심은 팀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 즉 팀의 규범과 문화였다. 그리고 그 문화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연구진이 지목한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전감 (Psychological Safety)’이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다. 이 팀에서는 내가 실수해도 비웃음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낮선 개념은 아니다. 조직심리학자 에이미 에드먼슨이 1999년 심리적 안전감의 중요성을 처음 제시한 이후 수십 년간 연구와 보도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심리적 안전감을 조직의 기치로 삼거나 강조하는 조직은 경험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지금처럼 시와 자동화가 생산성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더 빠르게,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라는 압박 속에서 조직은 점점 실수에 인색해진다.

다른 관리자에 비해 연차가 부족한 데다, 나와 다른 전문 분야의 팀원들까지 아울러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하는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심리적 안전감은 추구하기 힘든 가치다. 관리자에게 실수란 상방과 하방의 위협을 동시에 부른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놓일수록, 심리적 안전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내가 모르는 것을 혼자 해결하려 들기보다 팀원에게 공유하고, 그들 각자의 전문성에 기댈 때 훨씬 더 수월한 일 처리가 가능했다. 이는 관리자의 덕목에 그치지 않는다. 팀원 개개인도 몇 배로 심리적 안전감에서 멀어지기 쉽다. 문제는 업무 강도가 높고 인원이 적은 팀일수록 한 사람의 판단 오류가 팀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는 점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드러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강한 조직일수록 구성원은 문제를 감추려 한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번지는 건 대개 이 지점이다.

심리적 안전감은 단순히 너그러운 조직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인력이 빠듯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이다. 그 구조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반응이 만든다. 회의에서 엉뚱한 의견을 낸 동료에게 “그런 시각도 있군요”라고 받아주고, 실수를 보고한 후배에게 “빨리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응답하는 태도. 이 사소해 보이는 반응들이 쌓여 ‘이 팀 안에서는 솔직해도 괜찮다’는 경험이 된다. 이처럼 심리적 안전감은 누군가

선언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매일의 반응이 조금씩 퇴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가 업무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선명해진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갈등을 조율하고, 동료의 감정에 응답하는 일. 이 모든 것의 토대는 서로를 향한 신뢰다. 생산성이 팀의 엔진이라면, 심리적 안전감은 그 엔진이 오래 돌아가게 하는 기름이다. 강한 팀은 실수하지 않는 팀이 아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팀이다.



이현구
지식 정보 플랫폼 「뉴닉」에서 콘텐츠 PM으로 일하며 시사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복지널리즘』에서는 선임 에디터로서 글과 책을 기획·편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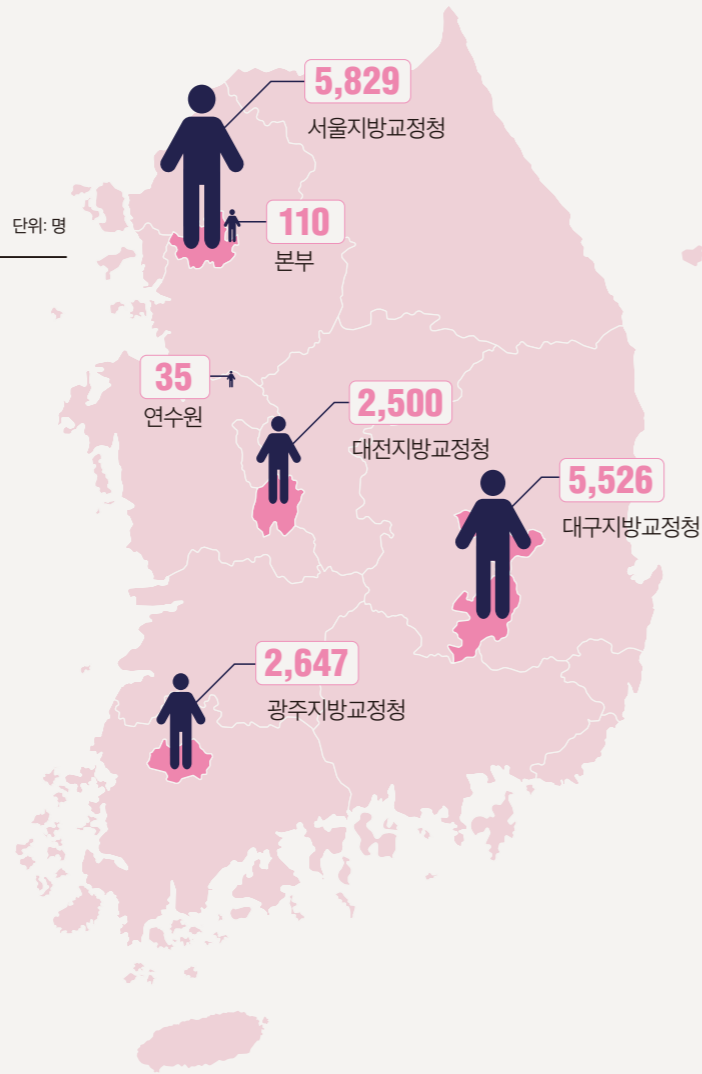
10년 동안 교정 조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정공무원 현원은 16,647명으로 정원의 99.3% 수준이다.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30%, 그밖에 숫자가 말해주는 교정 조직의 오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정원은 16,762명(전년 대비 99.7%)이다. 기존 기능직, 직업훈련 교사를 비롯한 별정직은 2013년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어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 전문 경력관으로 각각 재편됐다. 직렬별로는 교정 직렬이 15,459명으로 전체의 92.2%에 해당하며, 기술직군 중에는 운전직렬이 269명(1.6%)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교정직렬 공무원 직급별 인원은 교정관 이상이 498명으로 3.2%를, 교감 이하가 15,037명으로 96.8%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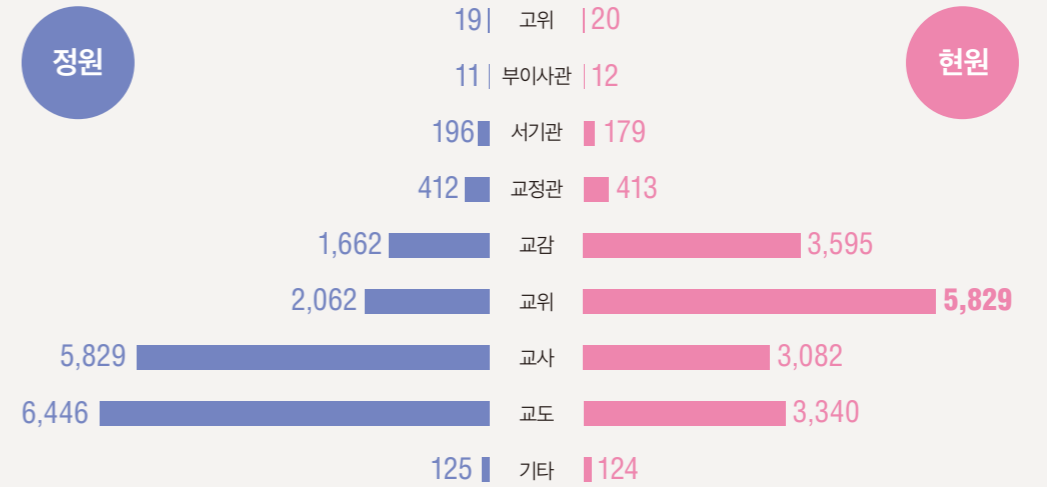
교정공무원 인원 현황

총 16,647명



직급별 정원 and 현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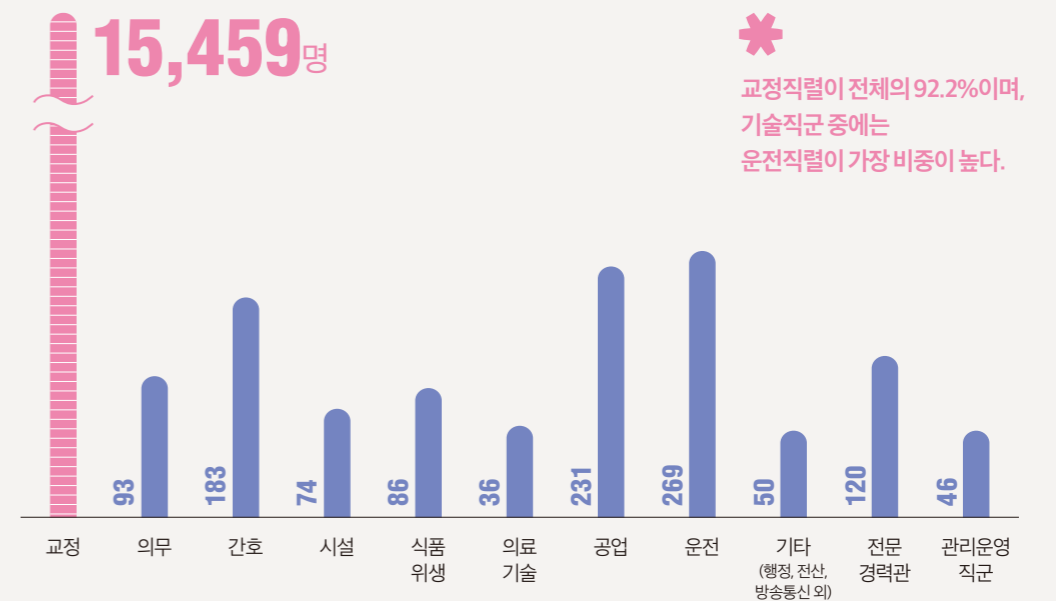
단위: 명



정원과 현원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2025년 교정공무원 현원은 16,647명으로 정원의 99.3% 수준이다. 직급별로는 교사와 교도가 각각 52.9%와 51.8% 선이며, 반면 교감은 216.3%, 교위는 285.3%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다. 한편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30%에 육박한다. 수용 시설의 80%가 과밀 수용 상태다. 이흥연 교정본부장은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교도관조차 안전하지 않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화는 불가능하다"면서 교도관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직렬별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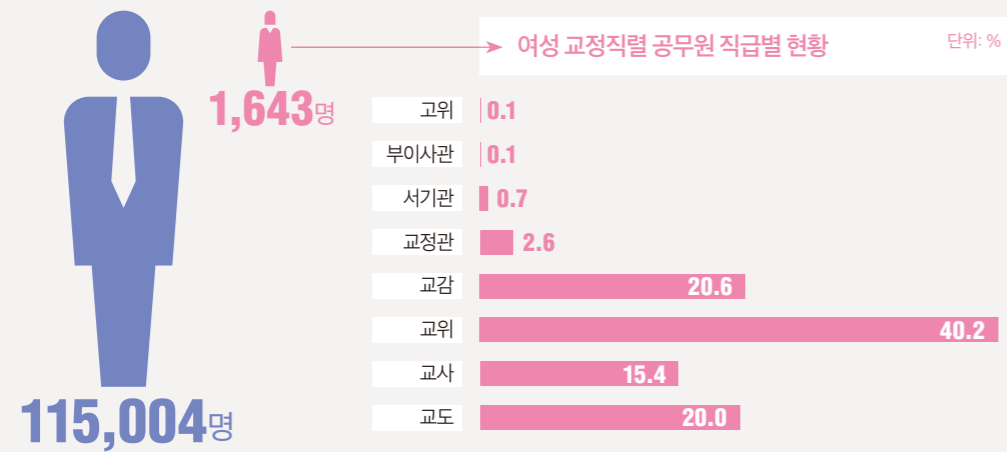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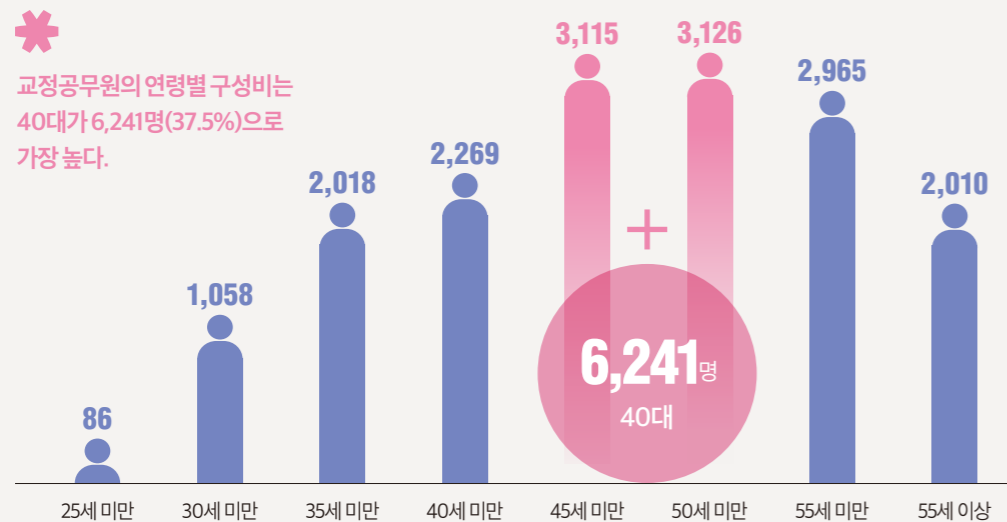
여성 교정직렬 공무원, 10년 사이 24.7% 늘었다

2025년 여성 교정공무원은 1,643명이고, 직렬로는 교정직렬이 1,414명(86.1%)으로 가장 많다. 교정직렬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5년 1,134명에서 2024년 1,414명으로 24.7% 증가했다. 고위직은 0명에서 2명으로, 부이사관은 1명에서 2명으로, 서기관은 5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구성비는 40대가 6,241명(37.5%)으로 가장 높다. 그 뒤를 50대가 잇고 있으며 20대와 30대를 합한 현원은 총 5,431명으로 전체 교정공무원의 32.4%를 차지한다.

성별 인원 현황



연령별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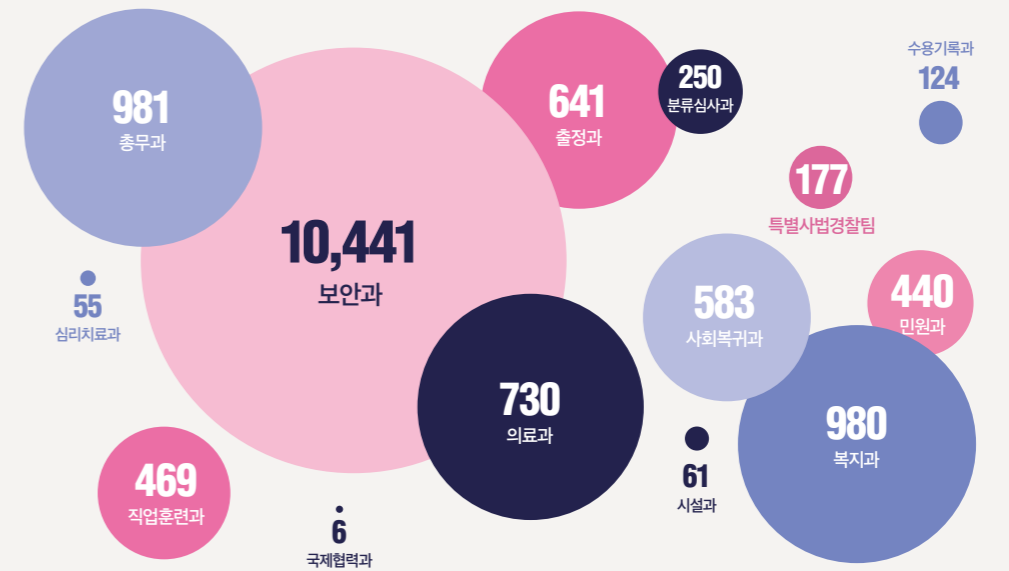


숫자가 말해주는 교정의 진화: '수용과 감시'에서 '교정·교화'로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법무부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면서 사회복지지원과(현 사회복지과)와 분류처우과(현 분류심사과), 보건의료과(현 의료과)를 신설했다. 2016년에는 심리치료를 신규 편성했고 2023년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을 발족했다. 2025년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는 총 14개의 부서가 운영 중이며 부서별 인원은 보안과가 10,441명(62.3%)으로 가장 많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지에 도모하고, 수용자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교정본부는 2026년 1월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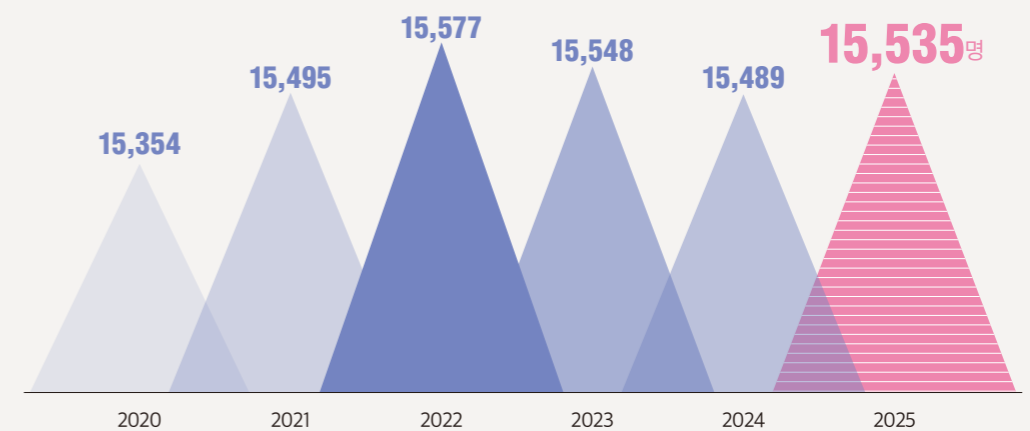
전국 교도소·구치소 부서별 정원

단위: 명



교정직렬 연도별 정원 추이

단위: 명



장흥교도소 시설관리인 허종복의 일: 좋은 인상을 만든다는 것

“교도소는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구부러졌던 민원인들의 마음이 반듯하게 펴지는 순간은 장흥교도소 허종복 시설관리인이 일하는 주된 이유다. 2026년 3월, 그 마음이 광주지방교정청장상을 받았다.

허종복 시설관리인은 2022년 9월 장흥교도소에 입직했다. 장흥의 남쪽 끝에 자리한 바닷가 마을 회진면에서 태어난 그의 첫 직업은 바다 일이었고, 머리가 굵은 이후에는 도시로 나가 건축 일을 했다. 교도소 시설관리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교도소는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그의 설명 가운데 머리에 콕 박힌 단어는 ‘인상’이었다. 접견을 위해 교도소를 찾은 이들의 마음이 장밋빛일 수는 없다. 단정한 풍경은 그 마음에서 괜한 걱정을 덜어낸다. 그는 올해 두 개의 상을 받았다. 첫 번째 상은 장흥교도소장에게, 두 번째 상은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받은 것이다. 상의 이유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직접적인 계기는 어느 눈 오는 일요일에 한 일이지만, 장흥교도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상은 그의 매일에 대한 감사 인사다.

지난 1월 폭설 속에서 하신 일이 화제가 됐어요. 일요일이었는데 눈을 치우러 출근하셨잖아요.

장흥에는 눈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온다 해도 많이 내리는 일이 드문데, 그날은 3~4cm가 쌓일 정도로 많이 왔어요. 눈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몰라도, 장흥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운전이나 보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요. 더욱이 우리 소는 진입로부터 언덕입니다. 제가 잠깐 와서 눈을 치우면 전 직원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직업훈련과 과

장님이 보신 모양입니다. 총무과에까지 알려져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맑은 일이라고 해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봅니다. 비가 올지, 바람은 얼마나 불지 알아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해둘 수 있으니까요. 눈이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시설관리인에게는 눈을 치우고 제설제를 뿌려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이 얼어서 다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하겠지요. 장흥교도소에서 첫해를 보내면서 일요일에 눈이 오면 근무자들이 눈을 치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일을 대신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도소 밖 사람들은 시설관리인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주된 일은 환경 정비입니다. 청소와 수목 관리 비중이 가장 큼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인데, 대개 30분 일찍 와서 15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출근해서 맨 먼저 교정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고, 일주일에 세 번은 수용동 쓰레기 배출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오전이 다 갑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청소와 환경 정비, 수목 관리를 하고요. 계절에 따라서도 일이 좀 다릅니다. 봄과 여름에는 제초 작업이 많고, 가을에는 낙엽 치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겨울에는 짬이 좀 나는 편이라 울타리를 포함한 화단 정비를 해두고, 나무들을 돌보며 보냅니다.





소나무 전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자 잘하고 싶은 일이다. 제때 가지를 잘라준 나무는 햇빛을 머금고 균형과 절제가 있는 수형으로 자라난다.

장흥교도소에서 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회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죠. 자연스럽게 바다 일과 농사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도시로 나와서는 건축 일을 했어요. 서울에서 10년, 광주에서도 한 10년 했습니다. 장흥 교도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정시설은 보통 사람에게 익숙한 직장은 아닙니다. 직원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장흥교도소에서 일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만두게 됐으니 저더러 지원해보라고 하더군요. 마침 건축 일이 힘에 부치던 차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쟁자가 여럿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합격했구요. 실은 제가 산림기능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일하면서 취득했는데, 조경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기에 지원서에 적어 넣었고, 미약한 전문성이나 마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산림기능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공공기관 시설관리인은 전국에 몇 없지 않을까요? 청사 앞 소나무가 근사하다 싶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나무는 제때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서로 엉켜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빛이 들어올 길을 열어줘야 해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얻은 지식도 보탬이 되겠

지만 농사일, 건축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심고 가꾸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 소가 늘 단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다란 동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우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먼 곳까지 이런저런 걱정을 품고 온 민원인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또 직원들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자고 들면 끝이 없는 일이 환경 정비입니다. 반대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고요. 열을 맞춰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보면서, 자신만의 원칙이 뚜렷한 분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원칙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중심에 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접견하러 오는 분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교도소의 첫인상이 깨끗하면 반대일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래서 주차장을 비롯해서 그분들 동선 주변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지과 직원들이 '실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청소실'을 책임지고 있으니 실장이 맞기는 합니다. 하하. 나이 든 사람에게 예우를 다해주는 거지요. 여기서 일하면서 매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초 작업을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우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먼 곳까지 이런저런 걱정을 품고 온 민원인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또 직원들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 때, 키 큰 나무들 가지치기를 할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직원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과장님까지 거들어주세요. 안 해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재 구매도 늘 먼저 권한 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없나요?” 먼저 와서 묻습니다. 직급 낮은 사람을 배려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비단 복지과 직원뿐 아닙니다. 제가 교도관 몇 분과 친분이 있어서 가끔 밖에서 저녁을 먹는데요. 어떨 때는 선배 같고, 또 어떨 때는 살가운 동생처럼 느껴집니다. 장흥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도 더 분발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장흥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관리인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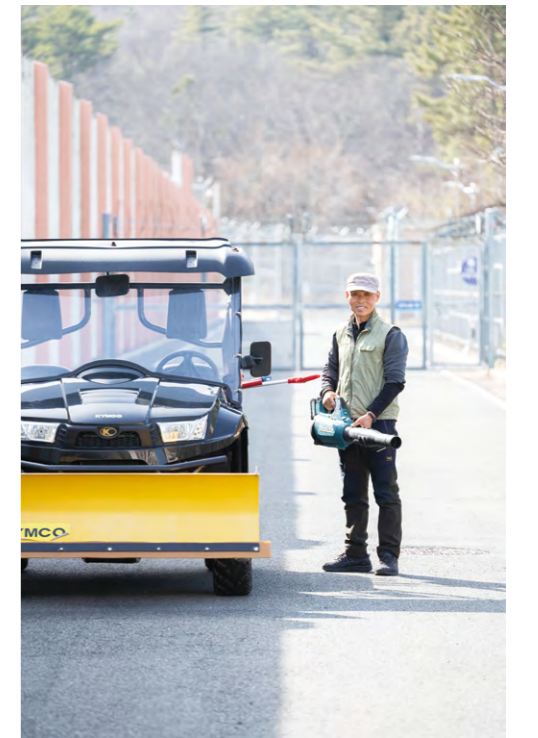
생활 태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소에 와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소 직원들 중에는 공부를 꾸준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체력 단련에 열심인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 생활 태도를 가다듬게 됐는데, 특히 시간 관리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정된 시간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퇴근 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바쁘게 살았더니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텃밭도 가꾸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더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몸 쓰는 일은 원래도 잘합니다. 5년 전에는 5km를 20분 안에 뛰었는데, 그때만은 못해도 여전히 잘 달립니다.

봄입니다. 꿈꾸기 좋은 계절이죠. 지금 염두에 둔 계획이 있을까요?

조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소나무를 전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장흥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그걸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네에서도 규모가 작은 과수원이나 어귀의 화단 관리는 제 몫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더 해보고 싶은 것은 분명하고, 자격증을 발판으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장흥교도소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물었을 때, 허종복 시설관리인은 ‘봄’이라고 답했다. 장흥교도소의 가로수인 벗나무가 환하게 꽃을 피우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 아래를 거니는 직원들 얼굴에 핀 웃음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복지과 이치민 교도는 단정하게 정리된 청소실을 바라보며 “실은 이번 설 명절에도 하루 출근하셨어요”하고 귀띔했다. 출근의 이유는 “내가 하지 않으면 운전원들 뒀이 된다”는 것이었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교정훈련센터 Correctional Training Center



교육훈련센터 앞에서 만난 여섯 사람.
왼쪽부터 문태림·한지민·김기백 교육생, 정상근 교정교수, 박지우·구형모 교관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305기가
선배들에게 물다

“교도관의 자부심,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이들의 가슴속에는 패기와 불안이 공존한다.

‘나는 꿈꿔온 교도관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305기와 지난 6주 동안 그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스승이었던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캠퍼스의 첫인상은 ‘푹푹함’일 것이다. 때마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는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법무연수원은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 기관이다.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며 현대적인 교육 시설을 갖추게 됐다. 연면적 63,141m²의 너른 들판 위에 21개 동의 건물이 낮은 어깨를 맞댄 캠퍼스 곳곳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305기 168명도 이곳에서 6주의 ‘프레시맨’ 시절을 보냈다.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시간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줬을까? 305기의 세 교육생 김기백, 문태림, 한지민과 그들이 자신의 첫 제자라는 정상근 교정교수, 실무 훈련을 맡은 박지우·구형모 교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Chapter 1

선배와 후배, 만나보니

가장 궁금한 점은 ‘왜’ 교도관이 됐는가였다. 한지민 교육생은 올해 만 21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해 단번에 교정직렬 9급 시험에 합격했다.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공부했다는 문태림 교육생의 선택은 경찰이 아닌 교정공무원이었다. 김기백 교육생은 10년간 육군 장교로 복무 후 2025년 10월 대위로 전역, 교도관이라는 두 번째 직업으로의 입직을 앞두고 있다. 과정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도관이라는 직업도 좋아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때 제가 한 생각은 ‘교도관에 대해 알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거야’였어요. 그래서 함께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의 삶을 다룬 드라마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봤죠. 그런 다음 5년 계획표를 짜서 부모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1년 안에 합격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사무직은 하기 싫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복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한지민 교육생

“4년 동안 경찰행정을 공부하면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더 커졌어요. 교정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잖아요. 무엇보다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이라는 점에 끌렸어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직업인 거죠.”

문태림 교육생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전주교도소에서 시행한 통합방호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교도관들을 처음 뵈는데 수용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아요. 군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했지만,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끌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아내의 허락을 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김기백 교육생

후배들의 출사표를 듣는 선배의 마음은 어떨까. 정상근 교수는 2009년 공주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의 삶을 시작했다. 교정행정의 주무 부처와 서울동부구치소, 대전교도소 등을 거쳐 2025년 12월 교정교수로 이곳에 오게 됐다. 출발선에 선 후배들의 연락처를 돕고자 지원한 자리다.

“이번 기수와 생활하면서 느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정직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사자는 확신이 있어도, 주변에서 말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 밀려서 입직한 사람, 다른 직렬로 이동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다릅니다. 평생 교도관으로 살아온 아버지를 보고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좋더군요. 한지민 교육생처럼 다큐멘터리를 보고 교도관들에게 존경심이 생겼다는 후배들도 많아요. 긍정적인 이유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인지 일에 대한 인식도 남다릅니다.”

정상근 교정교수

Chapter 2

소통의 온도 차, 솔직한 생각은요

신규 교정직 9급 과정을 치르는 6주 동안 법무연수원은 교육생들의 집이자 학교이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수용 관리에 필요한 법령과 규정, 무엇보다 교정의 가치를 머리와 가슴에 새긴다. 이와 동시에 수용동에서 법원까지, 교도관의 일이 이뤄지는 모의 공간을 갖춘 교정훈련센터에서 실무 실습을 밀도 있게 경험하게 된다. 교육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물었을 때, 세 교육생은 일제히 ‘현장 실습’을 꼽았다.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는 ‘선배들’이 있었다.

“오랜 시간 교정직을 준비하지만 사실 교도소나 교정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드라마나 유튜브에서 본 모습이 거의 전부이니까요. 대부분 냉혹하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교수님, 교관님들과 생활하고 현장 실습에 가서 교도관님들을 만나보니 제가 봐온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CRPT분들과 실습할 때는 너무 웃으셔서 당황할 정도였어요. ‘안 웃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엄청 귀여웠어요.”

문태림 교육생

“저는 춘천교도소로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를 듬뿍 느낀 시간이었어요. 서신을 걷고 배부하는 일, 투약, 계호까지 모두 처음 경험하는 업무였고 당연히 긴장도 됐죠.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이 조곤조곤 유의 사항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들은 말씀은 지금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명 후 현장에서도 잘 활용하려고요.”

한지민 교육생

반대로 후배들의 'MZ력'에 당황한 적은 없을까? 두 교관은 오히려 반갑다고 말했다.

“저희 때만 해도 선배들이 마냥 어렵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하기 쉽지 않았고요. 제가 2024년 1월부터 법무연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교육생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친구들은 교수나 교관에게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건의하기도 하고요. 무엇이 불편한지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도적인 모습들이 개선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해요.”

박지우 교관

“제가 입직한 이후 차세대 보라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무일지 전자화, 벨트형 포승을 비롯한 개선 장비 보급 등이 이뤄졌어요. 지금 우리 조직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맞춰가듯 외연이 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후배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 과정 자체가 조직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형모 교관

Chapter 3

6주의 교육이 가르쳐준 것: 교도관의 말하기

정상근 교수가 생각하는 신규 교정적 과정의 역할은 '완성형' 교도관을 배출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장에 나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도관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익숙해지는 시간이라는 것. 박지우 교관은 지식과 규정을 쏟아내는 대신, 새내기 시절 자신이 했던 실수담을 들려준다. “상황에 맞는 에피소드를 들려줄 때 제일 잘 흡수하더라고요.”

지식을 넘어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것도 교수·교관진의 몫. 정상근 교수가 틈만 나면 교육생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다. ‘교도관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강인한 체력이 아니다, 수용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 편견 없는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교도관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는 수용자가 먼저 느낍니다.” 이 시간들은 교육생들에게로 가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수용자에게 ‘밖에 나가면 뭐 할 거냐고 쉽게 묻지 말라,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유는 ‘결에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살고 싶은 미래가 있는 우리와 달리 그들에게는 돈도, 미래도 없다’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잠깐 멍했던 기억이 나요. 교도관은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

문태림 교육생

“현장 실습 기간에 ‘감정 조절’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수용자를 대할 때 감정이 말에 이입될 수 있겠구나, 현장에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수용자는 감시와 관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할 사회 구성원임을 마음에 새겼어요.”

김기백 교육생

Chapter 4

우리가 가져올 새로운 공기

“조직문화의 변화는 양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걸 점점 더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비중이 늘면서,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선배들도 어느 순간, 이 새로운 문화에 호감을 갖게 됐죠.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할 말 하는 문화’도 그중 하나인데요. 젊은 세대가 ‘이건 좀 이상한데요!’ 하고 목소리를 내면, 저희 같은 고인물도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조직이 변화하는 거죠.”

새로운 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물었을 때, 정상근 교수는 경험을 들려줬다. ‘고인물’과 ‘뉴비’가 대척점에서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말이었다. 새로운 세대의 패기와 기성세대의 열린 마음이 만나 일으킬 화학작용, 조직의 미래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305기의 야심 찬 포부를 소개한다.

“총주시를 유명하게 만든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덕분에 총주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됐고요. 저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교정본부에도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태림 교육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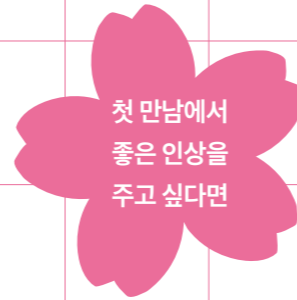
“주인의식이란 ‘조직을 위해 일을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조직의 주인인 ‘나’를 위해 필요한 개선을 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의미에 맞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김기백 교육생

“밝은 미소로 선배님들에게 에너지를 드릴 거예요!”

한지민 교육생

글 정명화 사진 이용기



박지우 교관

현장에 근무할 때부터 하던 습관인데요. 새내기 들어오면 조용히 쪽지를 건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적어서요. 누구나 처음에는 질문하기도 어렵고, 작은 실수에도 위축되잖아요. 부정적인 경험을 미리 줄여주는 거죠.

정상근 교정교수

선배라고 괜히 무게를 잡지는 말아야죠. 저는 나이와 계급을 막론하고 먼저 다가가요. “요즘 많이 바쁘지?” 직원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305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구형모 교관



이름을 외웁니다. 많을 때는 1기수에 200명이 넘기도 해서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말을 건네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면 교육생도 편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업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요.

한지민 교육생



말수는 적지만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든 일단 웃습니다. 웃음이 전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사회생활이라 서툴겠지만, 분위기 파악해서 빨리 녹아들어야죠! 밝은 미소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문태림 교육생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웃음으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에게 온 인사는 무조건 활짝 웃으면서 받기! 그래서인지 다들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해주세요.



김기백 교육생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인사는 무심하게 주고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첫인사를 할 때는 무조건 눈을 맞춰요. 그러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또렷하게 인사합니다. 타고난 ‘웃상’이 아니라 ‘웃상’이 되고, 또 ‘웃상’으로 기억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이름 새긴 대전교도소, '명예의 벽' 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교정에 헌신한 30년이 '명예'가 된 순간에 『교정』이 함께했다. 막이 열리는 풍경부터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과의 만남까지, 감동의 연속이었던 그날을 소개한다.



한 사람의 교정인에게 30년은 어떤 시간일까? 지난 2월 26일 대전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다. 대전교도소가 수용자 교정·교화와 건강한 사회 복구에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세운 '명예의 벽'을 제막했다. 사무청사 2층에 마련된 이 벽에는 30년 이상 재직 한 교정공무원들과 교정행정의 길을 함께 걸어 온 교정위원들의 이름이 나란히 헌액됐다. 대전형무소 시절 의료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용자 인권과 의료 처우 개선에 힘쓴 안사영 선생과 공무 중 순직한 고 김동민 교감·박기호 교위의 이름도 특별공로자 난에 새겨졌다.

이날 제막식은 소장을 비롯한 대전교도소 직원들, 명예의 벽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호영 교정본부장도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하이라이트는 후배와 가족들의 진심! 보안행정과에서 기동순찰반까지 각 부서 후배들이 보내온 영상은 30년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빼곡했다. 1989년생 주대영 교위는 "이름 석 자가 아니라 선배님들의 열정과 책임감, 성실함의 기록이자 후배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정표"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공로연수 중 소식을 들은 김미정 간호사무관은 "가슴이 벅차다"는 소감을 보내왔고, 노순천 보안과장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오전 11시, 이옥고 명예의 벽에 드리워진 막이 걷혔다. '이기영, 1993년 2월 23일'. 자신의 이름과 배명일 이 기록된 벽 앞에 선 이기영 교감은 "내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을 여기서 보냈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명예의 벽에는 30년 이상 근속자 55명의 이름이 등재돼 있으며, 대전교도소는 앞으로도 이 기록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교도소장은 이날 "오늘 명예의 벽에 새겨진 이름들이 후배들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교정행정의 진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명예의 벽이 가지는 의미를 전했다.



제막식을 마친 사무청사 앞, 채 식지 않은 감동을 품에 안은 사람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교정』이 커피트럭을 선물한 것! 이날의 주인공이기도 한 정구행·박종호 교감은 "명예의 벽 앞에 서니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라며 여운을 이어갔다. 젊은 직원들의 픽은 역시 '아이스', 레모네이드와 '아아'를 손에 들고 봄 햇살을 만끽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청춘이었다. 아침에 커피트럭 소식을 들었다는 김현명 대체복무요원은 '순정파'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했다. "가끔 커피트럭이 오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그 자리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내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오늘 대전교도소에 기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응원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훈훈한 격려였기를 바라본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커피트럭 보내드려요!

『교정』의 커피트럭 응원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특별한 행사를 앞둔 교정기관에서는 신청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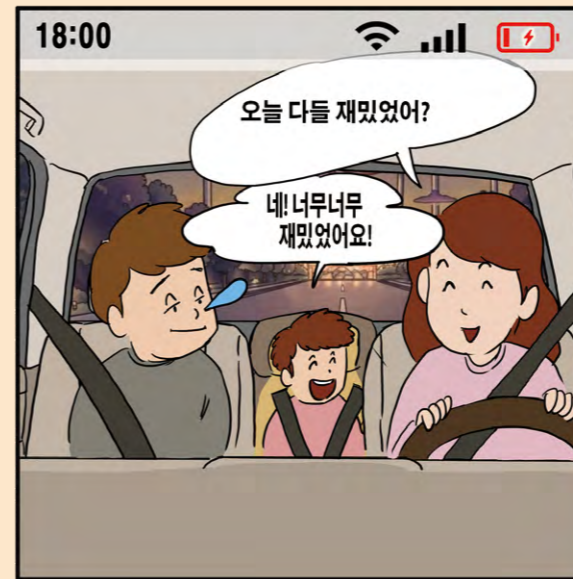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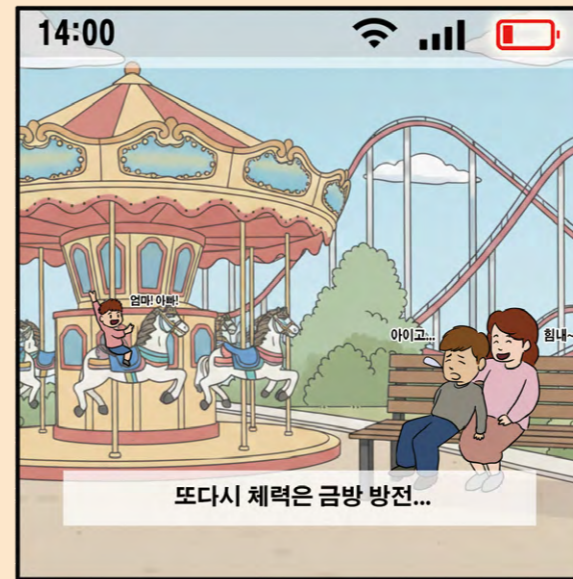
신청 방법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우리의 배터리는 사랑으로 완전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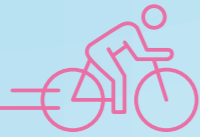
글·그림 안원태 교위



우리의 배터리는 사랑으로 완전충전!

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 햇살 만끽하기, 다들 준비됐나요?”
계절의 활력을 일상으로 이어나가는
대한민국 교정공무원들의 이 순간!



김성종 교감
순천교도소



#장수트레일레이스
#나이야가라

작년 가을 '한국의 샤모니'로 불리는 장수에서 트레일 레이스 20K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약 4시간에 걸쳐 장수의 산과 들, 계곡을 걷고 뛰었는데요. 나이가 주는 부담보다 다양한 지형을 달리는 즐거움이 더 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체력 관리해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게요!

신희옥 교위
대구교도소



#슬기로운출근

교정 동료들에게 저의 출근길을 소개합니다! 대구 옥포에서 하빈면까지, 총 80km 구간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운 좋은 날에는 일출이나 일몰을 바라보며 한참을 달리는데요. 그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아주 상쾌합니다. 출근길이 좋으면 하루가 좋잖아요. 그 기운이 수용자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 매일이 뿌듯하네요.



김아람 교사
대구교도소



#3월에는이내리면
#오히려종아

3월인데 대구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았죠. 덕분에 동료에 확인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 녹을 때까지 잔업 좀 하고 가야지'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후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쓰레받기라도 챙겨 가세요. 차에 눈 많이 쌓였을 거예요." 살가운 말 한마디에 걱정까지 녹아버렸습니다.



양동은 교위
순천교도소



#수요러닝회
#서브3

드디어 서브3(Sub-3,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미만에 완주) 달성했습니다! 작년 5월 보성낙차마라톤대회에 동료 교도관들과 참가, 2시간 56분 51초를 기록했어요. 남원마라톤대회에서는 2시간 55분 20초로 시간을 더 단축했습니다. 이게 다 순천교도소 동료들과 함께한 '수요러닝회' 덕분입니다. 모두 서브3를 달성하는 그 날까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달려볼게요.

Your Story

'소중한 순간'을 보내주세요!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동료 자랑, 나의 취미, 도전의 순간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록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2장 내외의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께는 『교정』이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보낼 곳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N번째 여행자를 위한 강릉 안내서

소돌해변에서 머물다 명주동으로 갔다.
운솔서림에서 책을 읽고, 명주상회에서는 인도의 전통 차 짜이를 마셨다. 강릉교도소 오승배 교사가 안내하는 강릉은 유명하지 않았다. N번째 강릉 여행자에게도 '처음'이었던 강릉.



강릉교도소에서 차로 10분, 곧거나 빛을 따라 몸을 구부려 자란 소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송정해변에 도착한 것이다. 오승배 교사가 이곳으로 안내한 이유는 바다가 아니다. “바다를 끼고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경포대와 이웃한 강목해변에서 커피로 유명한 안목해변까지, 약 3km 길이의 산책로가 솔밭 사이로 나 있다. 송정해변은 그 길의 중간 즈음으로, 어느 방향으로 발길을 두든 강릉의 또 다른 바다에 이르게 된다. 강릉의 하고 많은 바다 중에 굳이 송정해변을 선택한 이유는 강릉이 좋은 이유와 같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내내 인적이 드물어서, 눈으로는 바다를 보고 뺨으로는 솔향기를 느끼는, 온전한 산책이 가능하다.

N번째 강릉 여행자를 위해 오승배 교사가 권하는 두 번째 강릉 바다는 소돌해변이다. 추천사는 ‘강릉에서 제주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과연 발을 디디자 제주 외돌개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흰 모래사장 대신 단단하고 너른 바위 위로 파도가 유리알처럼 부서졌고, 짙은 빛 바다가 웅장한 기암괴석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실 소돌해변은 아내가 더 좋아하는 곳이다. 원래는 경기도민이었던 두 사람은 강릉에서 만나 결혼했다. 아직은 신혼, 여행하듯 강릉을 즐기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캠핑의자만 챙겨서 바다에 나가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강릉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오기도 합니다.”

바다를 봤으면 이제 도심으로 돌아올 차례, 목적지는 단연 강릉원도심이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신영극장이 있다. 신영극장은 그가 강릉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다. “전부터 작은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첫 부임지를 고민하던 차에 강릉에 그런 영화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를 강릉으로 이끈 신영극장은 강원 유일의 독립·예술영화관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다. 1960년 개관해 강릉의 상업영화 시대를 연 이후 여러 차례 존폐 위기를 겪었으나, 끝끝내 살아남아 ‘지역극장의 미래’로 불리고 있다. 그가 강릉 태생은 아니지만 신영극장을 사랑하는 1인인 것은 분명하다. 무보수 매점 직원을 자청할 정도였으니.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무제한 영화 관람권이 주어지거든요, 하하.” 그는 지금도 강릉씨네 마떼기 후원회원으로, 신영극장 한쪽 벽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영화 관람을 위해 남대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다면, 도보로 강릉원도심 여행을 이어가면 된다. 신영극장에서

“유명 관광지 말고도 갈 곳이 많거든요.” 강릉으로 향하기 며칠 전, 오승배 교사가 보내온 목록은 낯설었다. 송정해변에서 출발하는 그의 여정은 1998년 중앙동에 편입된 명주동 어느 찻집에서 끝이 났다. 강릉 사람이라 여행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걸까? 오승배 교사는 2020년 강릉 살이를 시작했다. 강릉은 그의 첫 부임지다. “강릉에 오기 전에는 경기도에 살았어요.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어딜 가나 북적이고 움직임의 속도가 빠른 곳이죠. 반면 강릉은 조금은 천천히 살아가는 곳이에요. 버스를 놓치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걸 알고부터 30분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대천을 따라 걷기도 하고, 일부러 좁은 골목으로 다니기도 하고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10여 분만 걸으면 명주동이 나온다. '명주'는 강릉의 옛 이름으로, 강릉대도호부관아가 자리한 명주동은 고려시대부터 강릉 행정과 문화의 중심이었다. 강릉 사람들은 행정명인 중앙동을 놔두고 여전히 이 동네를 명주동이라고 부른다. "강릉은 지역문화가 발달한 도시예요. 단오제를 비롯해서 국가유산야행, 월화거리축제, 경포벚꽃축제 같은 축제가 시시때때로 열립니다. 여름에는 정동진독립영화제가 있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 운동장에 돛자리를 펴고 늦은 밤까지 영화를 보는 분위기는 너무나 고혹적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작은 문화도 강릉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예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모임이 열리고, 인도 찻집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여행자에게도 열린 마음챙김 스튜디오가 있는 도시가 강릉이에요."

명주단길은 그 문화가 자리한 길의 이름이다. 강릉읍성의 흔적과 적산가옥이 깃든 이 길 위에는 오래도록 강릉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와 이제 막 문을 연 작은 브랜드가 어깨를 맞대고 자리한다. 오승배 교사의 느린 걸음을 따라 걷는 길, 마침 윤슬서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점 지기가 손으로 적은 추천사로 가득한 벽이 간판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서점지기와 안부를 나누고 새로 출간된



책을 둘러보는 사이, 초봄의 짧은 낮이 저물었다. 서점에서 나와 강릉대도호부관아의 창연한 담을 따라 걸으면 '명주상화'라는 이름이 붙은 찻집에 이른다. 인도의 전통 차 짜이와 라시, 간단한 인도음식을 파는 곳으로 메뉴판 대신 문화 프로그램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 첫 해외여행을 인도로 떠났던 오승배 교사에게는 그리움을 충전하는 공간이다.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삶이 된 두 공간에서 오승배 교사의 강릉 가이드는 마무리됐다. 시간의 비늘이 커져이 쌓인 소도시 여행의 여운은 지금도 이어지는 중이다.

신영극장은 효율과 합리화에 빼앗긴 영화 관람의 추억을 간직한 곳이다. 옛 간판과 새 간판이 나란히 걸린 건물 4층에 들어서면 영사기가 먼저 관객을 맞이한다.



Eat & Place

강릉원도심 여행자를 위한 추천사

1 중앙시장

강릉시 금성로에 자리한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상설시장으로 자리를 굳혀 영동지방 어류와 농산물의 집산지로 활약했다. 여행자에게는 먹을거리의 집결지다. 고전적인 명물 닭강정부터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길감자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다.

2 신영극장

올해 27회를 맞는 정동진독립영화제와 더불어 강릉을 '독립영화의 도시'로 이끈 주역이다. 씨네필들에게는 서울에서도 못 보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200석 규모의 단관극장으로 연간 70여 편의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한다. 홈페이지에 개봉 라인업이 공개돼 있으니, 때를 맞춰 강릉 여행을 계획해보면 어떨까.

3 윤슬서림

"서점지기의 감상평을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오승배 교사의 사랑방 중 한 곳으로, 이름은 강릉 바다와 남대천 윤슬에서 가져왔다. 강릉은 독립서점 '부심'이라면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도시, 그 가운데 윤슬서림은 안식을 담당한다. 책마다 붙은 감상평을 읽으며 차 한 잔에 햇살을 곁들여 다시 여행할 힘을 충전하기 좋은 곳이다.

4 명주상화

강릉 태생의 이정임 작가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던 마살라 짜이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오픈한 카페 겸 문화 공간. 작가가 배낭여행을 하면서 사 모은 현지 감성 아이템이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짜이, 라시, 콤부차 등을 판매한다. 밥과 난, 커리, 절임 채소가 함께 나오는 인도 네팔 가정식 '짜이 플레이트'로 여행자의 한 끼를 채워도 좋겠다.

5 웅심이칼국수 맛집들

칼국수냐, 감자옹심이냐는 강릉 여행자들의 최대 고민이다. 강릉 사람들이 내놓은 해답은 '웅심이칼국수'다. 오승배 교사의 추천은 강릉감자옹심 강릉 본점. 오래된 단층 양옥집의 정취가 맛을 묻는다. 고추장 베이스의 얼큰한 국물에 두툽한 면발이 어우러진 강원도식 장칼국수 맛집으로는 별집을 첫손에 꼽았다.

글 정다운 사진 이용기



금값이 올랐다니 기쁘긴 한데... 금 투자 시대의 명과 암

“금은 돈이다. 나머지는 모두 신용일 뿐이다.” 금융권의 거물 J.P. 모건이 한 말입니다.
어느새 금 한 돈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기준).
나만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요?



2020년 이후 금값 상승은 역사적이라 할 만합니다. 2020년 1온스당 1,500~1,600달러 선이었던 금값은 2026년 3월 4,5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3배가량 상승한 것이죠. 금융시장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기를 골드 슈퍼 사이클(Gold Super-cycle)이라 부릅니다. 한마디로 금값이 미쳤다는 말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상승한 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며 돈을 풀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돈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내 현금 가치를 지키려면 금밖에 없다는 심리가 확산된 것입니다.

미·중 간 패권 전쟁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중국은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이 보증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달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달러 자산이 미국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인도 등 큰손들이 미국 채권을 더욱 멀리하게 됐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된 것도 금 선호를 부추겼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이란 공격 등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자산을 안전한 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도 금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기존 질서

를 붕괴시키는 행보를 보이면서 동맹국들마저 미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습니다. 불붙은 AI 경쟁도 금값을 끌어올렸습니다. 금은 전기전도성이 우수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데다, 연성이 뛰어나서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주요 소재로 쓰입니다. 반도체 수요에 불이 붙으면서 금 수요도 급증했고, 수요가 증가한 만큼 금값은 또 오르고 있는 것이죠.

금값은 무조건 오르기만 할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는 이례적입니다. 통상 안전자산은 리스크가 낮은 만큼 수익도 낮습니다. 2010년대는 지루했던 금값 횡보시대로 기억합니다. 2012년 이후 6~7년간 금값은 온스당 1,100~1,300달러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S&P)은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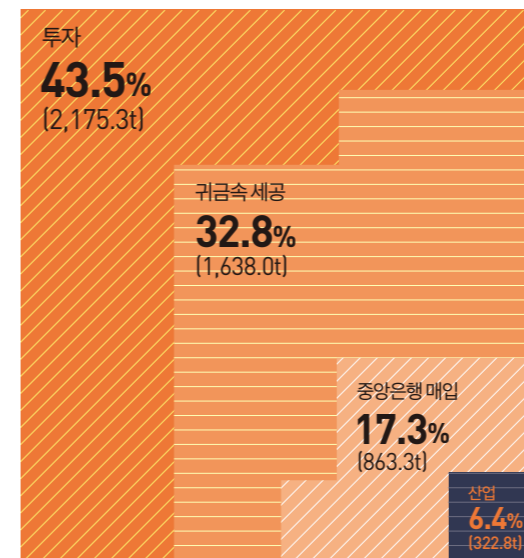
앞선 1980~2000년 사이 20년은 금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립니다. 1980년 온스당 850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금값은 1999년 온스당 25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고점 대비 70%가 떨어진 가격으로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손실률은 사실상 100%라고 봐야겠죠. 이 가격은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즈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1980년 금을 샀던 사람이 본전을 찾는 데는 무려 28년! 거의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과거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금은 한번 가격 상승이 멈추면 5~6년은 우습게 정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은 주식처럼 단기 폭락은 없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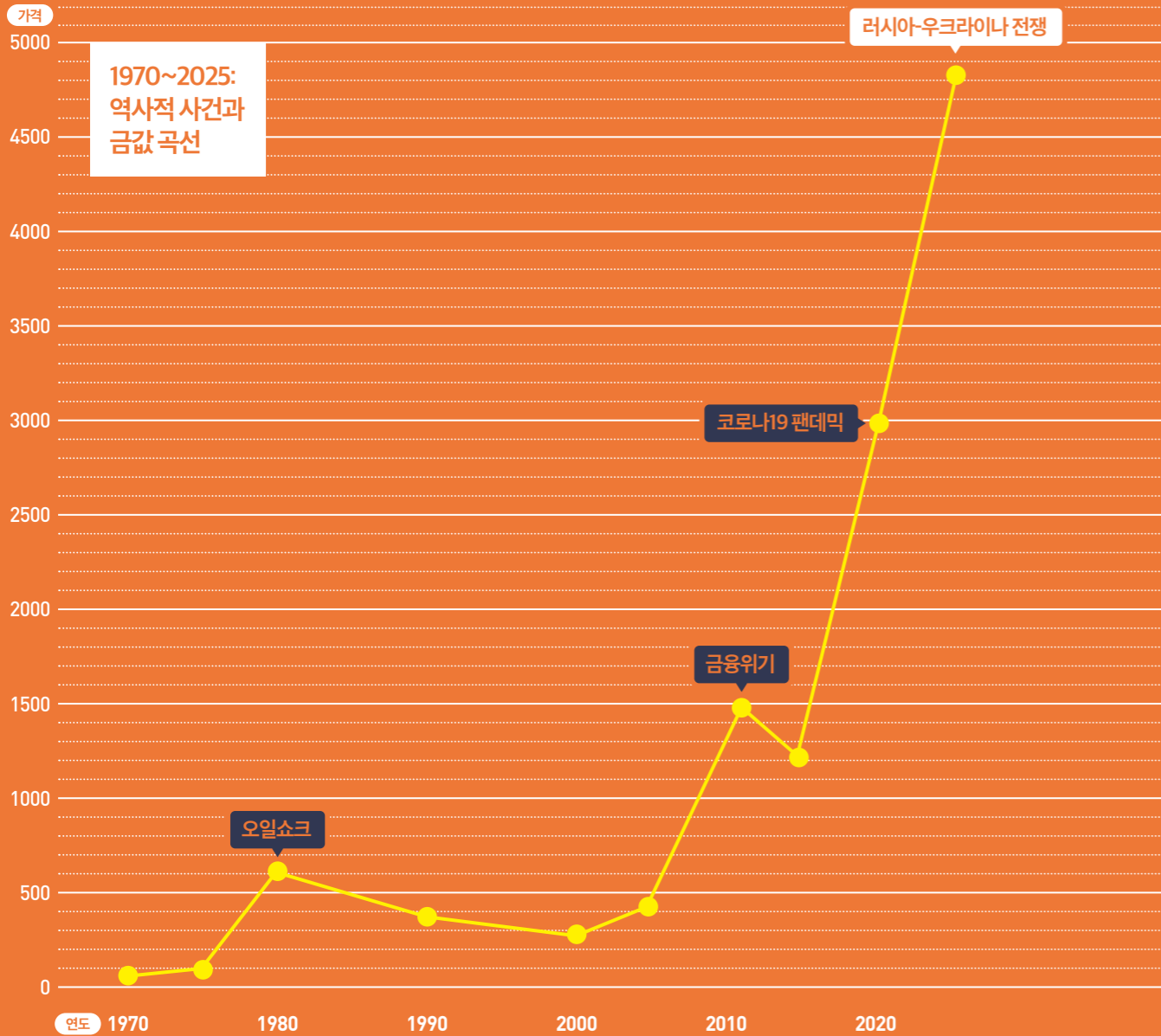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파민 도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금값의 변동 폭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1980년 1월 장중 온스당 850달러를 돌파했던 금값은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개월 뒤에는 48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미 연준(Fed)은 금리를 20%가량 올립니다. 저축금리가 20%나 되자 사람들은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자나 배당이 없는 금은 외면당했죠.

2011년 9월에도 한 달 만에 온스당 1,900달러에서 1,600달러로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때를 ‘검은 9월’이라 부릅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했는데, 이게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중단)을 통해 돈을 회수하자 금값이 폭락한 것이죠. 두 폭락에는 직전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금 수요



출처: World Gold Council



“Gold is money, everything else is credit.”

“금은 돈이다. 나머지는 모두 신용일 뿐이다.” 금융권의 거물 J.P 모건이 한 말입니다. 그는 금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의 말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았고 금값은 뛰어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 남유럽 재정위기 때, 코로나 팬데믹 때 금값은 경총경총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에도 금값은 뜹니다. 위기의 시대, 금은 든든한 보함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험한 시절을 살고 있다는 뜻이니 마냥 기뻐할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구매 시기, 비과세 혜택, 커피 한 잔 값으로 금 투자하기

그래서 금은 언제 오르나요?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대체재 성격이 큼니다. 달러가 강세면 금은 약하고, 달러가 약세면 금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저금리 때도 금값이 오릅니다.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치가 떨어지는 돈보다 실물(금)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하락 기에도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큼니다. 위험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에 '파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달러 가치, 금리, 주식은 대체로 금값과 반대로 움직입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금융위기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관세 전쟁 등으로 기존 질서가 크게 휘청거릴 때는 대체로 금이 오릅니다. 그래서 금은 '불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금값이 역대급으로 폭등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역대급으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금 투자도 단점이 있나요?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금리라도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일정 이자를 받지만 금은 한 폰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나 주식이 가진 복리효과(이자 이자를 낳는 것)를 애당초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수익률로만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담보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예금과 주식에 비해 수수료가 많이 든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특히 실물(골드바)로 금을 보유할 경우 살 때 부가세 10%가 붙고, 수수료로 5% 정도 더 떼갑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15%의 수익률로 시작하는 것이죠.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큰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골드바로 보관할 경우 도난의 우려가 있고, 은행 금고에 맡기면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금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금 투자는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KRX 금 시장

주식처럼 증권사 앱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앱에서 금 현물 계좌를 만들어서 1g 단위로, 주식 투자하듯 거래할 수 있

습니다. 이 방법의 매력은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거래 시 온라인 수수료가 0.2~0.3%로 낮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골드바로도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10%의 부가세와 골드바 개당 인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금 ETF 또는 펀드

금 ETF는 일반 주식 ETF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주가지수가 아니라 금값을 추종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세금도 주식 ETF와 똑같습니다. 매매 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되고,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ISA(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절세,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골드뱅킹

은행 앱에서 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0.01g 단위의 소액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은행들의 광고처럼 커피 한 잔 가격으로도 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도록 설정해 적립식으로 투자도 가능합니다. 단 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살 때와 팔 때 1% 내외의 거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4 골드바

민간 금거래소나 은행에서 직접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부상 기록이 별도로 남지 않아 상속증여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시점에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5%의 유통 수수료와 세공비가 붙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보관도 본인 해야 하기 때문에 꺼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 27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을 비롯해,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책을 써왔다.

마음 돌봄 워크북 2편 Q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마음나래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마음 돌봄 워크북 시리즈」, 2회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자존감을 키우는 첫걸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요즘의 나’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대견하고 자랑스러운가요? 아니면 아쉬운 모습이 먼저 떠오르나요? 전자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 후자는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덧 자존감이 일상 용어가 됐지만, 여전히 그 의미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1965년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개발한 미국의 사회학자 모리스 로젠버그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 그의 정의를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실패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해결책을 찾죠. 굿 뉴스 하나! 로젠버그에 따르면 자존감은 청소년기에 형성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나와 가족, 소중한 동료의 자존감을 위하여! 로젠버그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Step 1

당신은
당신 편인가요?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각 문항을 읽고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측정 결과는 총 5단계로 나뉩니다.

| 문항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②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 | 1 | 2 | 3 | 4 | 5 |
| ③ 대체로 봐서 나는 실패자이다. | 5 | 4 | 3 | 2 | 1 |
| ④ 나는 남들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 | 1 | 2 | 3 | 4 | 5 |
| ⑤ 내게는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5 | 4 | 3 | 2 | 1 |
| ⑥ 나 자신에 대해 관찮게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⑦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 1 | 2 | 3 | 4 | 5 |
| ⑧ 나는 자존심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 5 | 4 | 3 | 2 | 1 |
| ⑨ 내가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 5 | 4 | 3 | 2 | 1 |
| ⑩ 나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 5 | 4 | 3 | 2 | 1 |

나의 자존감은

| 총점 | 0~18점 | 19~24점 | 25~38점 | 39~44점 | 45 이상 |
|----|-------|--------|--------|--------|-------|
|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Step 2

단단한 자존감 형성하기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존감의 뿌리를 알면 '단단한 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세요

특히 성인에게 자아 수용(Self-acceptance)은 '포기'가 아니에요. 잘하는 점도, 부족한 점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단점을 포함한 나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외부 성과나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실수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다음에는 잘할 테니까요.

업무 피드백을 나의 가치와 연결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단을 외부의 평가에 맡기지 않아요. 부정적 피드백을 받더라도 그 피드백을 자신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내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연결 짓지 않기, 단단한 자존감을 위해 곁에 두어야 할 습관이에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로젠버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비판에 과도하게 민감함'을 꼽았어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내리는 존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정보로 받아들여요. 요즘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탑재해보세요.

스스로를 보호할 기술을 보유하세요

기저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 상태 자존감(Barometric Self-esteem)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땀'이 필요한데요. 효과적인 땀으로 신체 활동을 추천합니다. 달리기 후 평정심 되찾은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일기쓰기 등 매일 하는 루틴을 지속하는 것도 강력한 땀이에요.

마음나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심리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마음나래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교정본부 주요 소식

2026 03+04



2026. 03. 28.

“교정공무원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국가보훈부,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흥연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나,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 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 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 공무원과 달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 03. 05~06.

2026년 예산 집행 담당자 워크숍 개최,
업무 이해도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소재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에서 2026년 예산 집행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4개 지방교정청과 전국 54개 교정기관 예산 집행 담당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교정본부는 이틀에 걸쳐 올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주요 사항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직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6. 03. 12.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전문성과 실질적 자문 기능 강화

지난 3월 12일 교정본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보안정책담당장, 교정기획과장 등 교정본부 지휘부와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내무 당연직 위원 2명과 1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정정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이번에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외부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 전문 분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 자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 03. 05.

교정시설 의무관 채용 확대 필요성,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에 채용 공고

법무부가 교정시설 의무관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닥터링크(시니어의사지원센터)에 수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 교정시설 의무관은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질병을 진단 및 치료하는 등 1차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다. 자격 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일반의 면허,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이밖에 채용된 의무관은 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2026. 03. 1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형자 사회 복귀!
진주교도소에 사천희망센터 개관

이날 개관식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 강석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사천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하는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수형자들은 출소 전부터 외부 기업에 고용돼 센터에서 출퇴근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사천희망센터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을 생산하는 효정산업기계가 참여했다.



2026. 03. 12~13.

외부기업 통근작업장 안전 점검 실시로
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춘천교도소, 강릉교도소의 외부기업 통근작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안전장치 설치, 주기적 안전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외부기업 통근작업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출퇴근하며 사회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원활한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2026. 03. 27.

법무부-관세청, 마약범죄 근절 위해 '맞손'
상호협력의향서 체결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반입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교정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대품, 우편·택배 등 교정시설 내 반입품에 대한 마약류 단속 및 탐지 시 마약탐지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탐지 수사 장비 운용에 힘쓰고 인적 교류 등을 이어나가며 마약범죄 근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교정기관 소식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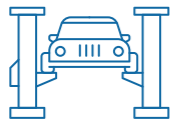
더 밝은 교정행정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직원들 찾아가는 차량 점검 서비스 실시

수원구치소가 현대자동차 수원지점과 협업, 지난 3월 13일 '찾아가는 차량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현대자동차 수원지점은 분기마다 타 브랜드 차량을 포함, 수원구치소 직원들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왔다.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심리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2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심리 전문가 12명을 초청해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이 될 소중한 자리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간병인·지능형흡관리사 과정 신설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간병인·지능형흡관리사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직업훈련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방교정청

울산구치소

2026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울산구치소가 지난 2월 10일 2026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분야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특히 '노인 수용자 증가에 따른 처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진주교도소

근무 만족도 향상 위해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와 업무협약

진주교도소가 지난 2월 20일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주)열정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소속감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설 명절 앞두고 지역주민 가정 방문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9~13일 지역주민을 찾아가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보면사무소 협조로 선정된 5가구에는 각 30만 원의 위문금이 전달됐다.



대구교도소

설 명절 맞아 수용자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교도소가 지난 2월 26일 수용자 공모전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수용자들이 감사 쓰기, 나와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 독후감 등을 통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지난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에서 농촌 돕기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는 수용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고, 파종기를 앞둔 지역 농가에는 일손을 더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홍성교도소서산지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새 교정협의회장 선출

지난 2월 25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 교정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었다. 교정위원들은 이날 서산지소 대회의실에 모여 새 교정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교도소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조직문화 개선 결의

홍성교도소가 지난 3월 3일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조직문화 개선, 세대 간 소통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직원들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서약서」를 작성해 함께 낭독하면서 더 나은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KBS 「시사기획 창」 촬영, 마약사범재활과 역할 전달

지난 3월 21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았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과정을 비롯해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 기관으로서의 고충과 성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가까이에서 전달했다.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이훈연 교정본부장, 정책 현장 방문

지난 3월 20일 이훈연 교정본부장이 목포교도소를 찾았다. 이훈연 본부장은 이날, 먼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목포교도소 곳곳을 둘러본 후 외부 통근작업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을 이어나갔다.



광주교도소

직원 정성 모은 「2026 사랑나눔 후원 장학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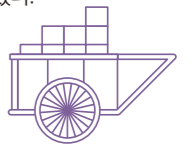
광주교도소는 지난 2월 4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광주 북구 삼각동·일곡동 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총 6명에게 20만 원씩 전해졌으며, 수여 대상은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순천교도소

에너지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전달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5일, 순천교도소 직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전달된 연탄 400장은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순천시 승주읍에서 추천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됐다.



전주교도소

수용자 2인, 방송통신대학교 4년 과정 학위 수여

지난 2월 25일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의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에는 윤순풍 전주교도소장과 양현섭 교정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위를 취득한 수용자들의 노력에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EVENT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Quiz

강원북부교도소에는 속초 시민이 사랑하는 호수 이름을 단 체육관이 있어요.
서프보드와 탁구대가 나란히 자리한 이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ㄹ ㅈ ○ ㄱ

Hint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이 호수의 아름다움에 반해 대회 출전도 잊고 머물렀다고 전해져요.

✉ correct2023@naver.com으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 1.20~5.15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산림 내에서
라이터, 담배 소지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 금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산불신고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소방서 | 경찰서
119 | 112

재난 입니다!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 53조



